

배포일시	2020. 11. 23.(월) 9:00 (총 3매)	보도시점	2020. 11. 23.(월) 17:00
담당부서	국립기상과학원 미래기반연구부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	담당자	부 장 김 연 희 과 장 이 정 환
		전화번호	064-780-6620 02-2181-0392

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, 브레이크 없는 상승

- 2019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(410.5ppm) 최고치 기록
- 세계기상기구, 2019년 온실가스 농도 담은 <온실가스 연보> 발간
- 올해 들어, 코로나19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 효과 적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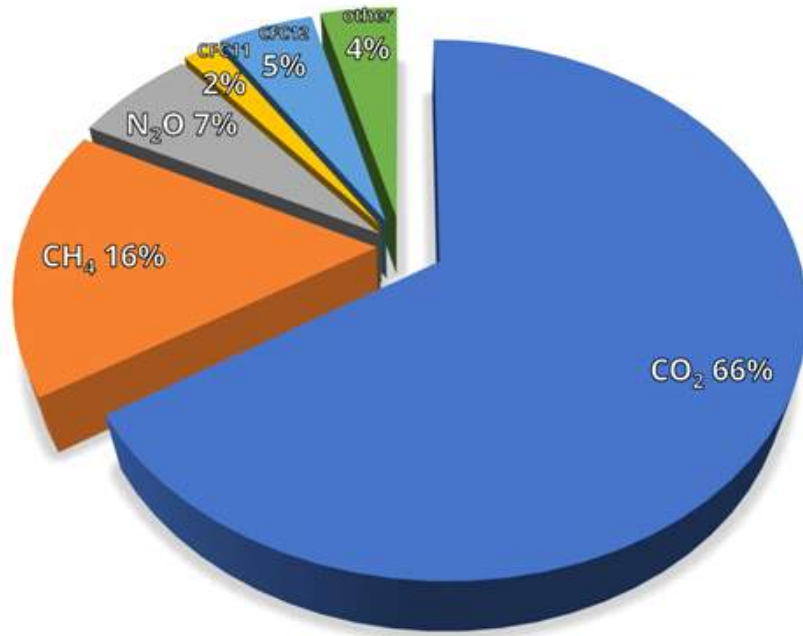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과 세계기상기구(WMO)는 『온실가스 연보(No. 16)』 발간을 통해 2019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10.5ppm으로 전년(407.9ppm)보다 2.6ppm 증가해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산업화 이전(1750년)보다 48% 증가했다고 발표했다.
- 전 지구 최근 10년 동안 증가율은 2.37ppm/yr이었으며, 2019년은 전년도 대비 2.6ppm 증가를 나타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.
 -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측정한 한반도(안면도)의 2019년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약 7.4ppm 높았으나, 그 증가율은 전 지구와 비슷하였다.

〈전 지구와 한반도(안면도)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〉

구분	전 지구*	한반도(안면도)**
2019년 연평균 농도	410.5ppm	417.9ppm
전년도 대비 증가량	2.6ppm	2.7ppm
최근 10년 평균 증가량	2.37ppm/yr	2.4ppm/yr

*세계기상기구 온실가스 연보(No.16), **기상청 2019 지구대기감시보고서

- 연보에 따르면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키는 복사강제력은 1990년 이후 45% 증가했으며, 전체 온실가스에 의한 복사강제력 중 이산화탄소가 66%를 차지한다.



<복사강제력(산업화 이전 대비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척도)의 온실가스 별 기여도, WMO 온실가스 연보 No.16 >

- 세계기상기구(WMO)는 이번 연보를 통해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나,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.
- 코로나 확산 기간 동안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~7% 줄어든 것으로 추측하며,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0.08~0.23ppm 정도만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-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기후 영향은 최대 수십 년 후에 나타나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빨리할수록 온난화 효과를 더 빨리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.

- 세계기상기구(WMO) 페테리 탈라스(Petteri Taalas) 사무총장은 “우리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파리협정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.”라고 강조하면서 “과학에 기반한 기후 행동이 필요합니다.”라고 강조하였다.

-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현실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두 이산화탄소가 멈춤 없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인위적인 억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.”라고 강조하며, “기상청은 전 세계 기상청들과 함께 온실가스 증가 감시, 배출원 추적, 이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을 예측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.”라고 밝혔다.